

모미지가세

모미지가세는 기쿠치 계곡에서도 특히 고요하고 그늘이 충분한 곳이다. 레이메이노타키 폭포보다 상류이며 짧은 쪽 산책로에서 되돌아가는 지점에 있는 다리의 하류에 위치한다. 강 양 기슭에 단풍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고 급류 위에도 가지를 뻗고 있어서 단풍이 든 여울이라는 의미의 모미지가세라는 이름이 붙었다. 단풍이 드는 계절은 특히 인기가 있어 붉은색과 주황색으로 선명히 물든 단풍을 즐길 수 있다. 단풍이 떨어지면 때때로 물가에形形色색의 양탄자를 깔 것처럼 보인다. 또한 이끼가 무성하고 시원한 그늘이 생기기 때문에 여름에 산책하기에도 좋다.

강변의 산책로에서 물가로 내려가는 샛길이 있어서 바위가 많은 물가를 수십 미터 걸을 수 있다. 단, 강에 가까운 부분은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에 물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.